

# 포스코케미칼, 배터리 시장 공략 가속... 양극재 공장 증설

광양공장 4단계 확장 공사 착공  
양극재 생산능력 10만톤 수준 확대  
세계 점유율 20%, 연매출 23조 목표

포스코케미칼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가파른 성장에 대응해 양극재 광양공장의 생산라인 증설에 나선다.

포스코케미칼은 23일 전남 광양시에 서 양극재 광양공장 4단계 확장 건설 공사의 착공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양극재 광양공장의 생산능력 확장은 총 3만톤 규모다. 1회 충전시 500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 3세대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용 하이니켈 NCMA 양극재를 생산할 예정이다. 총 2758억원을 투자하고, 2023년 가동을 목표로 한다.

광양공장의 4단계 증설이 완료되면 포스코케미칼은 양극재 생산능력을 10만톤으로 확대하게 된다. 양극재 10만톤은 60kWh급 전기차 배터리 110만여대에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포스코케미칼은 2018년 1만톤 규모



23일 포스코케미칼이 양극재 광양공장 4단계 착공식을 개최하고, 착공식에서 (왼쪽부터)포스코케미칼 손동기 양극소재실장, 이봉학 노경협의회 대표, 정대현 에너지소재사업부장, 민경준 사장, SNNC 김준형 사장, 포스코 정석모 이차전지소재사업실장, 포스코건설 박시준 산업플랜트사업실장이 시삽하고 있다.

의 양극재 구미공장 준공에 이어, 2019년 광양 울촌산단에 5000톤 규모의 하이니켈 양극재 광양공장 1단계를 준공했다. 또, 지난해 2만5000톤 규모의 2단계 공장을 준공했으며 현재 내년 11월 가동을 목표로 3만톤 규모의 3단계 공사를 진행 중이다.

포스코케미칼은 광양공장의 단계적 증설과 함께 유럽, 중국 등 해외공장 설

립도 추진해 글로벌 생산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글로벌 배터리사와 자동차사들에 대규모로 적기에 공급해 고객사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날 착공식은 포스코케미칼 민경준 사장, 정대현 에너지소재사업부장, 손동기 양극소재실장을 비롯해 포스코정석모 이차전지소재사업실장 등 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포스코케미칼 민경준 사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이번 확장으로 고객사에 최고 품질의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라며 "포스코 그룹과 함께 원료 밸류체인 구축, 기술 확보, 양산능력 확대 투자를 더욱 가속화해 세계 최고 수준의 사업 경쟁력을 갖춰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포스코케미칼은 차세대 소재 선

행 개발 등의 기술 리더십 확보와 지속적인 투자를 통한 양산체제 구축으로 이차전지소재사업을 2030년까지 양극재는 현재 4만톤에서 40만톤, 음극재는 4만4000톤에서 26만톤까지 생산능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세계 시장 점유율 20%, 연 매출 23조원 이상 규모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oul.co.kr

## LG전자, 협력사 상생강화... RPA 도입 지원

(로봇프로세스자동화)

협력사에 전문가 상주, 노하우 전파  
경영성과 기여·업무효율 개선 기대

LG전자가 협력사에 자동화를 지원하며 상생을 강화한다.

LG전자는 올해부터 협력사에 로봇 프로세스자동화(RPA) 도입 지원을 본격화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 협력사는 12개로, RPA 교육과 전문가 지도, 실행과 사후관리 등 추진 체계로 지원한다. LG전자는 협력사에 전문가를 상주시켜 과제 발굴과 세부 과제별 프로그래밍, 유지보수 등 노하우를 전파할 계획이다.

RPA는 사람이 처리해야 하는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업무를 로봇 소프트웨어로 자동화하는 기술이다. 단순 업무를 줄이고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를 통해 협력사 경영 성과에 기여하고 업무 효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LG전자 RPA 전문가가 협력사 직원을 대상으로 RPA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 /LG전자

LG전자구매/SCM경영센터 이시용 전무는 "협력사의 스마트 팩토리 및 RPA 구축 등을 적극 지원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며 LG전자와 협력사의 사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LG전자와 협력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

다"고 말했다.

한편 LG전자는 협력사와 상생을 위해 ▲정보화 시스템 구축 ▲스마트팩토리 구축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 ▲무이자 자금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한 부품 개발 ▲무료 교육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김재용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보안 업데이트 4년 보장

2019년 이후 출시 모델 업데이트 대상

갤럭시가 출시 후 최소 4년간 보안이 지킬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는 2019년 이후 출시한 갤럭시 모바일 기기에 보안 업데이트를 최소 4년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 모델은 130개 이상으로 갤럭시 S10과 노트10, 갤럭시 A10과 M20 및 폴더블 스마트폰이다. 갤럭시 탭도 2019년 이후 출시 모델이 업데이트 대상이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보안 업데이트를

더 빠르고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운영체제와 칩셋 파트너, 200개 이상 전세계 이동통신사업자와 협력해 취약점을 발견하면 즉시 보안 패치를 진행해왔다. 모든 안드로이드 기기 대상 보안 표준 확립을 위해서도 1000개 이상 파트너와 보안 연구 커뮤니티와 협력 중이다.

또 삼성전자는 자체 보안 플랫폼 삼성 녹스와 보안 칩셋, 보안 프로세서를 개발했으며, 최근 갤럭시 S21에는 변조 방지 보안 메모리를 추가한 삼성 녹스 볼트를 새로 탑재하는 등 보안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김재용 기자 juk@

### 티웨이항공

#### 유기견 후원 폰케이스 판매

티웨이항공이 쉬운 동물보호 참여 문화를 만드는 '아우른'과 함께 유기견을 후원하는 착한 휴대폰 케이스를 출시했다.

티웨이항공은 23일 휴대폰 케이스에 하늘을 나는 강아지의 모습과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는 강아지의 모습을 귀여운 일러스트로 담아냈으며 각 3가지 색상으로 만나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케이스는 4월까지 아우른 공식 사이트를 통해 한정 판매한다. 판매 수익금은 유기견 보호소 후원을 위해 기부할 예정이다. /김수지 기자

## LGD, 디지털 엑스레이 영상 시장 진출

세계최초 DXD용 'Oxide TFT' 개발

LG디스플레이가 고부가가치 의료용 영상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지목했다.

LG디스플레이는 세계 최초 대면적 '디지털 엑스레이 검출기용 Oxide TFT'를 개발하며 의료용 엑스레이 영상 시장에 진출한다고 23일 밝혔다.

옵디아에 따르면 의료용 DXD 시장은 2020년 19억5000만달러에서 2024년 25억3000만달러로 급성장할 전망이다.

이 제품은 엑스레이 촬영 결과를 디지털 파일로 만들어 PC에 전송하는 역할을 하는 DXD의 핵심 부품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진단과 진행 여

부 등을 파악하는데 사용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차별화된 산화물 기술을 활용해 100배 빠른 전자이동도와 10배 낮은 노이즈를 구현해냈다. 진단뿐 아니라 수술용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극찬을 받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 외부에서 많이 사용하는 저출력 사양 모바일이나 포터블 엑스레이로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방사선 피폭량도 50% 이상 줄였다.

LG디스플레이는 우선 디알텍사에 신제품을 공급한데 이어 글로벌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김재용 기자 juk@

## 삼성전자, '아이소셀 GN2' 출시

기본 5000만화소, 최대 1억화소 지원

삼성전자가 '초격차' 기술로 이미지 센서 자동초점기능을 한층 업그레이드했다.

삼성전자는 아이소셀 GN2를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제품은 픽셀을 대각선으로 분할하는 '듀얼 픽셀 프로'를 최초로 적용했다. 초점을 맞추는데 양옆 픽셀뿐 아니라 위아래 위상차 정보까지 활용할 수 있어 자동 초점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다.

픽셀 크기는 1.4μm미터다. GN1 대비 0.2μm 크기를 키워 빛을 36% 많이 받아 더 밝고 선명한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게 했다.

화소 모드도 다양하다. 기본 5000만 화소에 저조도 환경에서는 4개 픽셀을 묶어 더 밝은 1200만화소, 지능형 리모



아이소셀 GN2 /삼성전자

자이크 알고리즘과 업스케일링을 사용하면 최대 1억화소도 낼 수 있다.

에너지도 최소화했다. 이미지 정보를 바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로 전달해 처리하는 '스태거드 HDR' 기술을 통해서다. 실시간 HDR보다 동작 전력을 약 24%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초당 풀HD 480프레임, 4K 120프레임으로 동영상을 찍어주는 슈퍼 슬로우 모션 기능과 스마트 ISO 프로 등 최신 카메라 기술로 고품질 이미지도 최적화했다. /김재용 기자